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4년도 제37호

"국회로 간 스포츠"

이기흥X정몽규X홍명보 25명 역대급 증인, 24일 문체위 현안질의 시선집중

전영지 스포츠조선 기자

국민일보 단독취재

[단독] "범죄 이력조차 못봐"... 체육단체 검증 시스템 부재

이누리 국민일보 기자

"제식구 감사기 송방망이 처벌 만연...대한체육회, 적극적인 대응조치 없이 방관"

폭력·성비위·인권침해 저지른 체육계 인사, 10명 중 4명 징계 안 받았다

강영훈 매일신문 기자

특별보좌역 등 측근이 체육회장 연임 심사

[단독]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세 번째 연임 놓고 셀프 심사 논란

김성모 동아일보 기자

MBN 단독 취재

[단독] '성추행 해임 간부에도 1억여 원' 대한체육회 퇴직금 실태 보니...

최돈희 MBN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증인·참고인 요청 명단

"국회로 간 스포츠" 이기흥X정몽규X홍명보 25명 역대급 증인, 24일 문체위 현안질의 시선집중

파리올림픽 열기가 채 사그라들기도 전 체육계를 향한 여의도발 한파가 몰아친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홍명보 A대표팀 감독,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 등 체육인 25명이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가 24일 현안 질의를 통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대한배드민턴협회와 대한체육회를 둘러싼 논란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문체위는 전재수 위원장과 임오경(간사)·강유정(비례)·김윤덕·민형배·박수현·양문석·이기현·조계원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박정하(간사)·김승수·배현진·신동욱·정연욱·진종오 의원(이상 국민의 힘)과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비례)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5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하에 '대한축구협회, 대한체육회 대한배드민턴협회 현안 관련 증인 채택'을 의결했다. 3개 단체 통틀어 증인만 총 25명, 참고인이 총 8명이다.

당초 감사증인 대한축구협회,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질의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여당 요청으로 대한체육회도 함께 불렀다. 대한체육회 운영 전반, 대한축구협회, 대한배드민턴협회 운영과 관련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윤성욱 사무총장, 김종수 사무부총장, 정동국 진천선수촌 부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장재근 진천선수촌장(협회의 대한체육회 규정 위반 관련), 김병철 스포츠공정위원장(대한체육회 및 스포츠공정위 운영 관련), 정강선 파리올림픽 선수단장(파리올림픽 선수단 운영 관련), 김승곤 대한체육회 특보(대한체육회 운영 관련)도 불렀다. 김기한 서울대 체육학과 교수가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상급단체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파리올림픽 현장 및 해단식에서 논란이 된 대한체육회를 향한 박정하, 김승수, 신동욱 등 여당 의원들의 고강도 질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 의원, 문체부-대한체육회의 대리전이 예상된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극한 대립 속에 '쌍방'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황, 대한체육회에 문체부가 감사 청구 근거로 삼은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는 후원사 독점 공급권 계약 시스템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회장 특별보좌역 및 위촉자문위원직 신설 자체 예산의 방만한 사용 파리올림픽 참관단 '민폐 응원' 의혹 회장 임명 위원들이 회장의 3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운영 방식과 스포츠윤리센터 징계 요구 불이행 등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장미란 차관도 증인으로 참석하는 만큼 야당 일부 의원들은 정부 정책을 정면 비판할 계획. 대한체육회가 감사 청구 근거로 제시한 국민체육진흥법의 취지에 반하는 생활체육 예산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의 문제점 국회에서 확정된 사업예산 집행과정에서 과도한 개입 및 승인 지연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장 계속

대한축구협회의 경우 정몽규 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정해성 전 전력강화위원장,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 홍명보 A대표팀 감독 등 5명과 축구협회 감사를 총괄한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클린스만 감독 사임 이후의 감독 참고인으로는 김대업 기술본부장(해외감독 면접과정), 이미연 전력강화위원(내부감독 추천과정, 이임생 이사가 권한 위임받은 후 감독 추천과정), 박문성 스포츠해설가, 김현수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이상 축구협회 운영 및 축구국가대표감독 선임 문제) 등 4명이 채택됐다.

문체위원 상당수가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이하 전강위)의 감독 선임을 위해 치열한 논의를 이어간 6개월치, 1~11회차 회의록 전문을 갖고 있는 만큼 '전강위원들이 처음부터 외국인 감독이 아닌 홍명보 감독으로 방향을 정해놓고 전강위를 진행했다'는 일부 팬들의 오해는 풀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해성 전 전력강화위원장의 사임 과정, 위원장 대행으로 나선 이임생 이사의 감독 선임 과정, 전강위원의 감독후보 추천과정과 관련 낱선 질의가 쏟아질 예정이다.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과정에서 협회가 문체부 승인 없이 개설했다는 600억대 마이너스 통장 의혹, 정몽규 회장의 4연임 도전 등도 핫이슈다. 김승수, 진종오(이상 국민의힘), 강유정, 민형배 의원(이상 민주당) 등 여야 막론 위원들이 축구협회의 자료 제출 부실을 성토했으며 강도 높은 질의를 예고하고 있다.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작심발언 이후 이른바 '페이백' 논란, 횡령 및 배임 의혹에 휘말린 대한배드민턴협회의 경우 김종웅 전무이사(협회 운영, 후원용품 페이백, 후원사 유치), 김택규 회장(협회 운영, 국가대표 선발, 후원용품 페이백, 선수관리), 김종수 부회장(국가대표 선발, 선수관리), 전명섭 의무위원장(선수부상관리, 선수 치과진료 관련), 한우구 사무처장(협회운영, 후원용품 페이백, 임원 출장여비 처리, 자체예산 사용 등), 전경훈 실업연맹회장(선수 연봉제 운영 관련), 김학균 파리올림픽 국가대표팀 감독(선수훈련 및 부상 관리), 한수정 전 대표팀 트레이너(안세영 트레이너, 선수부상관리, 올림픽 재계약), 이상순 배드민턴협회 체육인인권위원장(선수 인권관리) 등 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참고인으로는 홍성길 광주배드민턴협회장(요넥스 후원 신발 규정 이사회 승인 관련), 길영아 삼성생명 배드민턴 감독(선수지원, 부상 관리), 차윤숙 대한배드민턴협회 이사(포천시청 감독, 선수관리 규정 개정 관련) 등 3명이 소환됐다.

오전 10시부터 오전, 오후로 나뉘어 진행되는 현안 질의에서 3개 체육단체 관련 의혹을 일소하긴 애초에 불가능한 일정. 의원들의 질책만 난무할 뿐 30명이 넘는 증인, 참고인들에게 질문이 한번이라도 돌아갈지, 제대로 답변할 시간이 주어질지도 의문이다.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축구인, 체육인들을 좁은 상임위 회의실에 종일 한자리에 몰아넣고 심문하는 모양새다. 자기 할말만 하고 고성과 막말이 난무한 채 스포츠의 전문성, 진실의 실체보다 국민 정서나 인기에 영합한 편향된 질의, 2018년 야구대표팀 선수 선발과 관련 선동열 감독을 소환한 후 역풍을 맞았던 흑역사 재림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축구감독을 뽑는 문제를 국회가 왈가왈부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에도 힘이 실린다. 배드민턴협회의 경우 이달 초 문체부의 감사 결과 중간브리핑과 지난달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해 각종 의혹들이 이미 쏟아졌다. 내달 국정감사도 앞둔 상황.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별로 없을 것'이라는 이른 예측도 흘러나온다. 각 의원실이 새 '킬러 문항' 개발에 힘을 쏟는 가운데 축구계, 체육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단독] “범죄 이력조차 못봐” ... 체육단체 검증 시스템 부재

체육단체 회장으로서는 적절한 자격이 있는지 검증할 시스템이 사실상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 파리올림픽에서 예상 밖의 호성적을 거둔 선수들의 선전과 대비해 체육 행정 비리 등의 문제는 더욱 도드라져 보인다. 한국 체육계가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꼼꼼한 검증 절차를 강제하는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 회장사를 검증할 만한 절차는 사실상 없다.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범죄 이력이나 재정 상황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세부 규정이 부재해서다.

현재 체육단체 회장 선거는 큰 틀에서 상위 기관인 체육회의 정관과 회장선거관리규정을 따른다. 종목별로 세부 사항은 각각 다르지만, 기본 골격은 체육회 정관 범위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체육회 정관에서 회장 후보자 결격 사유를 명시한 건 범죄 사실 여부, 승부조작 가담 등을 나열한 제30조1항이 유일하다. 하지만 자격 조건을 어떤 절차로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후보자 개인이 스스로 결격 사유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다.

후보자의 재정 상황을 알아볼 방법도 마땅치 않다. 선수 포상금 및 대회 개최 비용 마련 등 회장의 재력에 단체 운영이 좌우되지만, 일정 금액만 내면 후보자의 재정 능력은 간접적으로 인정된다. 기탁금 기준은 체육단체마다 다르지만 체육회는 2000만원의 하한선을 적용하고 있다.

체육단체 관계자 A씨는 “체육회에 원론적인 규정만 있을 뿐, 회장 선거 입후보 시에 후보자에게 결격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며 “후보자가 직접 제출한 문서가 관련 사실을 증빙할 유일한 자료”라고 말했다.

체육단체 관계자 B씨는 “관련해 체육회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회장을 검증해야 하느냐’고 건의한 적도 있지만 규정 보완이 이뤄지지 않는 않았다”며 “체육회도 개인정보 문제가 걸려 있어 후보자에게 서류를 직접 받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더라”고 답답해했다. 결국 후보자가 제출한 ‘결격 사유가 없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모든 검증 절차를 기대는 셈이다. 체육회 관계자는 “규정상 서약서에 서명한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바로 퇴임 수순을 밟게 된다”며 “그 이상의 정보를 요구하면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서류의 진위를 파악하려면 현재로서는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한 제한적인 접근만 가능하다. 체육회 관계자는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후보자가 다른 체육단체에서 받은 과거 징계 이력을 조회할 순 있지만 개인 단위로, 혹은 그가 법인을 운영하면서 발생했던 문제는 언론을 통해서 나오지 않는 이상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체육단체 회장을 둘러싸고 여러 비리 의혹이 불거진 것을 고려하면 규정 보완의 필요성이 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0일 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 등 임원진에 대해서 횡령·배임 가능성을 제기했다. 대한사격연맹에선 신명주 전 회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임금 체불 문제가 불거지면서 물러났다.

강준호 서울대 사범대학장은 “형식적인 절차를 만들어 놓고 ‘절차를 지켰다’고 넘어가지만 면피에 불과하다”며 “정말 좋은 사람을 뽑는 데 타당한 절차인가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의구심이 드는 게 많다. 들어오면 안 될 사람들을 걸러낼 만한 시스템조차 없다”고 진단했다.

폭력 성비위 인권침해 저지른 체육계 인사, 10명 중 4명 징계 안 받았다

스포츠윤리센터가 폭력·성 비위·인권침해 등을 저지른 체육계 인사에게 징계를 요구해도 10명 중 4명은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계의 제 식구 감싸기가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스포츠윤리센터 징계 요구 이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이후 4년간 센터가 징계를 요구한 348건 가운데 이행하지 않은 건수는 140건(40.2%)에 달했다.

특히 징계 대상이 체육단체 임원인 경우는 45건(32.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처리 기한(90일)이 미도래한 40건도 포함된 수치다.

체육단체 임원이 징계 요구 대상인 99건 중 징계가 이행되지 않은 건수는 45건(45.4%)으로, 임원이 아닌 경우 징계 미이행률(38.1%)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스포츠윤리센터는 2020년 체육계의 인권침해와 비리 근절 등 불공정을 타파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설립됐다.

그러나 최종 징계권은 각 종목단체에 있고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사실상 체육단체가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처벌이나 자의적 징계가 가능한 구조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징계를 권고해도 징계를 이행하지 않거나 센터 측 권고 징계 수위와 체육단체의 실제 징계 수위가 차이 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에도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140건을 종목별로 살펴보면 태권도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각장애인 스포츠 쇼다운이 10건, 최근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으로 논란인 축구가 9건이었다.

비위 내용별로 보면 폭력·폭행이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추행·성폭력·성희롱 등 성 비위가 35건, 괴롭힘 34건, 인권침해 26건, 직무태만과 언어폭력이 각각 1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쇼다운 종목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7건도 징계 요구가 있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아울러 체육단체 임원이 징계 대상인 54건 중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별 최소 기준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를 내린 경우도 15건(27.7%)이 확인됐다.

스포츠윤리센터는 2021년 대회 운영과 관련된 금품 등 수수 금지와 관련된 규정 위반을 이유로 인천광역시레슬링협회 임원에 대해 징계와 수사 의뢰를 요구했지만 최종징계는 징계 최소 기준인 1년 이하 출전정지보다 낮은 수준인 견책에 그친 바 있다.

이어 모 체육단체 임원의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징계와 수사 의뢰를 요구했지만 6개월 이하 출전정지 또는 자격정지라는 징계 최소 기준을 무시한 채 견책에 그친 경우도 있었다. 품위 훼손 및 허위 자격증을 이용한 부정 보조금 신청 및 수령과 직권남용 및 직무태만 등으로 징계를 요구했지만 징계 없이 종결된 사례도 있다.

김승수 의원은 "종목별 단체의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이 만연하고 있는데도 대한체육회는 엄중한 경고나 페널티 조치 등 적극적인 대응조치 없이 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체육계의 고질적인 병폐가 근절되지 않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했다.

[단독]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세 번째 연임 놓고 셀프 심사 논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세 번째 연임을 심사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을 두고 불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회장의 연임을 최종결정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이 회장의 특별보좌역과 측근 등이 포함돼 '사실상 거수기 심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스포츠공정위는 체육회장과 임원의 연임을 심사하고 징계·포상을 심의하는 기구로, 이 회장이 2016년 취임한 다음해 출범했다. 이 회장은 내년 1월 스포츠공정위원 15명 중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위원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3선에 성공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정하 의원은 "이 회장 취임 전 22%였던 연임 비율이 91%까지 늘었다"며 "사실상 회장과 측근 인사의 거수기 역할을 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 스포츠공정위, 이기흥 회장 취임 직후 출범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원래 법제상벌위원회로 징계나 규정을 담당하던 기구였는데, 체육회 제안으로 스포츠공정위로 이름을 바꾸고 연임 심의까지 맡리게 됐다"며 "원래는 중임이었던 체육회장 임기도 스포츠공정위를 거치면 3번까지 할 수 있도록 이때 바꿨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내년 1월 스포츠공정위원 15명 중 10명 이상이 회의에 참석해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3선에 성공한다.

스포츠공정위 정관 43조에 따르면 스포츠공정위원들은 총회에서 선임하지만, 총회 의결이 있으면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회장은 과반수(5명 중 3명 이상)의 외부인사가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외부인사를 중심으로 공정하게 연임 여부와 징계, 포상 등을 심의하라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추천위원회 속한 외부인사 중 다수가 체육회 근무 이력을 가진 인물로 드러났다. 박정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시작된 41대 후반기 추천위원에 포함된 A 씨는 체육회 전 미래기획위원이자, 현 체육회 고문변호사다. B 씨는 체육회의 전 국제위원회 위원이자 현 체육회 위원회 위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하 의원실은 "2019년부터 외부위원으로 선임한 6명 중 5명이 체육회 관련 이력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 특별보좌역 등 측근이 체육회장 연임 심사

박정하 의원실에 따르면 스포츠공정위가 설립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임심의 대상자로 올라온 회장 및 임원은 총 239명으로 이중 심의에서 부결된 대상자는 20명에 그쳤다. 사실상 91%가 통과돼 연임된 것. 스포츠공정위 설립 전인 2016년 임원심의위원회의 심의 통과율은 22%에 불과했는데, 이 회장 취임 후 91%로 급증했다.

스포츠공정위 내부에서도 연임심의 과정의 문제점이 종종 지적됐다. 2020년 제52차 회의 속기록을 보면 "작년에도 그렇고 우리가 부결이 한 건이고 올해도 부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봐서 요식행위가 돼버린 것 같다. 12년, 16년 네 번까지 해 20년 연임하게 되면 경기단체가 자기 것이 되는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그러자, 스포츠공정위원장이 "좋은 지적"이라고 답변하더니, 안건을 통과시키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스포츠공정위의 2017년 회의에서도 "공정위 제도 도입 뒤 90% 이상 연임 가결하고 있다. 조건 부합되면 5회 6회 7회 연임도 문제 없느냐"는 내부 비판이 나오는 등 "시작부터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연임 통과율도 문제지만, 연임심의에서도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점수를 재조정하는 등 심의 기준조차 유명무실했다"며 "연 4500억 원의 세금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10년간
비위 적발 직원 수 (명)



[단독] '성추행 해임 간부에도 1억여 원' 대한체육회 퇴직금 실태 보니...

【 앵커멘트 】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도 거액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추행이나 뇌물수수 혐의로 해임된 직원들에게도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곳이 있습니다.
연간 4천억 원 넘는 정부 자금이 들어가는 대한체육회 얘기입니다.
최돈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2018년, 대한체육회 간부 A씨가 부하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2년 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해임됐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한푼도 깎이지 않고 1억 3천여만 원 전액 지급됐습니다.

또 다른 직원 B씨도 계약업체로부터 1천 4백여 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해임 됐는데 퇴직금은 고스란히 챙겨갔습니다.

▶ 스탠딩 : 최돈희 / 기자

- "지난 10년간 비위 행위로 징계받은 직원은 모두 30명입니다. 이중 23명에게 퇴직금 전액이 지급됐습니다. 나머지 7명도 현재 재직 중인 걸 감안하면 비위 징계자 전원이 퇴직금 전액을 받고 퇴직한 겁니다. "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위 행위가 적발되면 퇴직금 중간 정산이 제한된다는 규정은 있지만 징계 기간만 아니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비리 행위자에 대한 퇴직수당 지급을 금지하라는 국민권익위 권고도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박정하 / 국민의힘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

-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이런 비위 직원에 대한 규정이 엄하게 정리가 돼서 불공정하게 지급되는 퇴직금이나 퇴직 정산이 없어야 된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 측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다면서도 징계 기간 수당 미지급 등 일부 규정은 최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마다 4천억 원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대한체육회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됩니다.

MBN뉴스 최돈희입니다.

주간 스포츠 소식

다 짓고도 개관 미룬 속사정은...광주 시립체육관 부실 지적

<https://www.yna.co.kr/view/AKR20240923093300054?input=1195m>

[단독] 체육회장 갑질 논란... "폭언·성희롱에 결혼식 동원"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809890&plink=ORI&cooper=NAVER

제주 장애학생체육대회 24~25일 개최...6개 종목 운영

<https://www.yna.co.kr/view/AKR20240923042000056?input=1195m>

대전시민생활체육대축전 28~29일 개최...오상욱 등 팬 사인회

<https://www.yna.co.kr/view/AKR20240923112500063?input=1195m>

"체육 시간에 K팝 댄스, 태권도 배워요"...한류 열풍인 英초교 화제

https://www.seoul.co.kr/news/international/europe/2024/09/23/20240923500157?wlog_tag3=naver

정선군, 종합경기장 손 본다...전국대회 유치·생활체육 활성화

<https://www.news1.kr/local/kangwon/5547772>

대전농협, 대전시체육회에 사랑의 쌀 1000kg 기탁

<https://news.tf.co.kr/read/national/2135649.htm>

전남도장애인체육회 "LA 패럴림픽 대비 중장기 계획 수립"

<http://www.kjdaily.com/article.php?aid=1727088261640497007>

거제시, '2024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https://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40923010006145>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